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21. 8. 20.(금) 조간	배포일시	2021. 8. 19.(목) 10:00
담당과장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동익 (044-215-4710)	담당자	박창규 사무관 (ckpark0916@korea.kr)

2021년 2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◇ '21.2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611억불로 전분기말(1조 307억불) 대비 304억불 증가
- ◇ '21.2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042억불로, 전분기말(5,659억불) 대비 383억불 증가
 - 비거주자의 원화국채 등 국내채권 투자, 국내기관의 외화채권 발행 등으로 장기외채 증가폭이 컸고(+260억불), 은행권 외화예수금 등 단기외채도 증가(+123억불)
- ◇ 글로벌 저금리 여건 하에서 외채의 양적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외채 구성상 장기·안정적 자금의 비중 증가 등 질적 측면의 개선 병존
 - 우리 경제에 대한 우호적 시각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채권 투자 증가, 대외신인도 호조에 따른 외화채권 발행 주체 다양화 등은 긍정적
- ◇ 대외채무 증가에 불구,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
 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9.5%, +0.2%p),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9.2%, +2.1%p)이 상승하였으나, 과거 위기시 및 다른 신흥국과 비교시 여전히 낮은 수준

□ (대외채권) 2021년 2/4분기말 대외채권은 1조 611억불로 전분기말(1조 307억불) 대비 304억불 증가

-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, 은행권 해외예치금 증가, 기타부문(비은행권 등)의 해외채권 투자 등이 주된 요인

□ (대외채무) 2021년 2/4분기말 대외채무는 6,042억불로 전분기말 (5,659억불) 대비 383억불 증가

○ (만기별)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780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123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4,262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260억불 증가

○ (부문별) 정부(+112억불), 중앙은행(+43억불), 은행권(+142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민간기업 등, +85억불) 외채가 모두 증가

- 정부 및 중앙은행은 비거주자 국내채권 투자(+141억불)가, 은행권은 증권 발행(+73억불) 및 예수금(+51억불)이, 기타 부문은 증권 발행(+44억불)이 주된 증가요인

□ (순대외채권) 2021년 2/4분기말 순대외채권(대외채권-대외채무)은 4,569억불로 전분기말 대비 △79억불 감소

□ (평가) 글로벌 저금리 여건 하에서 외채의 양적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외채 구성상 장기·안정적 자금의 비중 증가 등 질적 측면의 개선 병존

① 이번 분기 중 외채 증가폭이 확대된 데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, 우리 경제의 투자 매력 외에 향후 美 통화긴축 및 금리상승 전망에 따른 先 조달수요도 일부 영향

② 외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비거주자의 국내채권 투자 (+182억불, 비중 47%)였으며,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호적 시각에 기인

* AA등급국 10년물 국채 수익률(6달, %): (韓)2.10 (뉴질랜드)1.78 (英)0.72 (佛)△0.21

- 비거주자의 국내채권 투자는 원화표시 외채 비중 증가를 통해 외채 상환 리스크를 감소

* 자국통화표시 외채는 자본유출 취약성이 외화표시 외채보다 낮음(IMF '21.3)

- ③ 기타부문의 해외채권 발행(+38억불)이 늘어난 것도 특징인데, 이는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, 대외신인도 호조 등으로 국내기관의 해외조달 여건이 개선된데 기인

* (신용등급) <Moody/s> AA2 ('15.12.18~), <S&P> AA ('16.8.8~), <Fitch> AA- ('12.9.6~)
(CDS프리미엄) '17년 하반기 이후 지속 감소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(18bp)

- 공기업*, 증권사** 등 해외채권 발행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국제금융시장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

* 주금공은 10억 유로 채권 마이너스금리 발행(6월)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

** '20.3월 ELS 마진콜 사태 이후 증권사의 해외채권 발행 필요성 및 관심 증가

- ④ 단기외채의 경우, 은행권 외화차입 보다 예수금 등의 비중이 높아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, 증가 속도에는 유의할 필요

* 과거 단기외채가 크게 증가했을 때에 비해 단기외채 증가분 중 은행차입 비중 낮음
: ('20.1/4) 85% ('20.4/4) 49% ('21.2/4) 20%

□ (외채건전성) 외채 증가에 불구하고, 우리나라의 외채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

-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29.5%, +0.2%p)과 단기외채/외환보유액 비율(39.2%, +2.1%p)이 상승하였으나 과거 위기시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, 다른 신흥국과 비교시에도 양호

*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('08.9월말) 단기외채비중 51.7%, 단기외채비율 78.4%

* 단기외채비율('21.1/4, %): (터키)162 (아르헨)103 (말련)95 (남아공)55 (韓)3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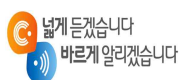
- 사상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(4,587억불)과 대외채권(10,611억불), 4,000억불대 순대외채권(4,569억불) 등을 함께 감안할 경우 전반적인 대외건전성도 안정적 수준

- (향후 대응) 최근 델타 변이 확산, 美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자금 유출입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외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

< 대외채무 현황 >

구분	2019	2020				2021		전기비
		3월	6월	9월	12월	3월	6월	
총 외채(억불)	4,707	4,892	5,067	5,143	5,449	5,659	6,042	+383
단기외채(억불)	1,355	1,503	1,562	1,461	1,593	1,657	1,780	+123
장기외채(억불)	3,353	3,389	3,505	3,682	3,856	4,002	4,262	+260
단기외채/총외채(%)	28.8	30.7	30.8	28.4	29.2	29.3	29.5	+0.2%p
단기외채/보유액(%)	33.1	37.6	38.0	34.7	36.0	37.1	39.2	+2.1%p
대외채권(억불)	9,572	9,551	9,557	9,772	10,278	10,307	10,611	+304
순대외채권(억불)	4,864	4,658	4,490	4,628	4,828	4,648	4,569	△79

※ 통계 출처: 2021년 6월말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1.8.19.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